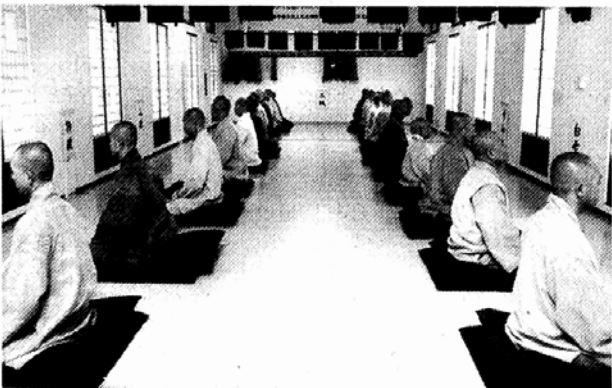


‘여래선’ 홍씨우핑·쑤언이핑 공저

여래선은 조사선의 기초

“佛書 한권 수천의 포교사” 10년동안 책 50권 펴내



△선(禪)은 인류가 배양한 사유의 꽃이다. 사진은 한국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모습.

흔히 여래선은 조사선과 대립되는 낮은 단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여래선> (운주사는 그러한 시각이 편협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래선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그 특징 등의 고찰을 통하여 조사선이 여래선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할 수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은이는 먼저 중국선의 초기형태부터 살펴본다. 보리달마 이전에 이미 중국에 선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소승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 그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선, 즉 여래선이 달마에 의해 중국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중국의 지식인 사회 및 일반 민중들에게 다가간다. 그리하여 다른 종파 즉 교학을 주장하는 화엄종이나 천태종 등을 압도하고 중국사회를 평정하게 된다. 이후 선은 해능과 그 문하생들에 의해 절정에 이르고 중국 사회에 전란한 정선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물론 그것은 한국불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다. 또 한 이 책은 중국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종(宗)으로 선학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인 해능 이전까지에 돌보기를 댈다. 결국 이 책의 서술범위는 보리달마의 전승에서 육조 해능의 선종 창립까지이며, 해능 남종선과 신수 북종선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중국선종의 초기에 속하는 능가사와 동산법문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다. 즉 여래선의 중국적 전개 및 대표적 인물의 사상과 실천, 여래선이 중국불교 및 중국 전통사상과 문화발전기에 미친 영향, 여래선과 능가선,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차이점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승

선학과 대별되고 조사선과도 대별되는 중국선종의 초기단계에 고찰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여래선은 일종의 방편설법에 지나지 않음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것은 중국선과 선종의 발전단계 및 그 특징을 반영하는 역사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능에 의해 정립된 남종선의 사상과 방법 및 그 근원에 광범위하게 호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성으로 여래선은 초기선학이 선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인도선이 중국선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여래선이 100여 년 동안

달마-해능의 선종 창립까지 서술

중국불교 사상·문화 발전에 큰 영향

것이다. 또한 조사선과 상대되는 어떠한 폄하적인 의미도 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승불교와 상대되는 의미로 소승불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서술한 여래선은 중국선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여래선의 중요성은 해

안 힘겹게 창조한 선학이론이 없었더라면 조사선도 중국문화의 무대 위에서 1000여 년의 시원스러웠던 풍경은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선학총서 시리즈로 출간된 이 책은, 중국 남경대 홍씨우핑·쑤언이핑 교수가 저술했다. 값 2만원.

출판 담당= 김경근 기자 gamsa@buddha.pia.com



대구 영남대학교·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최근 <이야기 관세음보살> (좋은인연)을 내놓았다. 이 책은 회정 스님과 보적 각시의 완전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또 다른 의미는 스님의 50년 책이 라는 점이다. 스님은 지난 92년 대구에 영남대학교·관음사를 개원하면서 곧바로 불교출판사 ‘좋은인연’을 설립하고 그 첫 권으로 <새로운 불교공부>를 출간했다. 그리고 꾸준히 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내놓은 <이야기 관세음보살>이 바로 50권 째이다. 10년 만으로 1년에 5권씩 펴낸 셈이다. 출판물 생업으로 하는 작가가 아닌 포교와 수행이 주된 활동인 수행자가 이렇게 많은 책을 내놓은 것은 문서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책과 삶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불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 만든 불서 한권은 웬만한 포교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불교교양대학의 포교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불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포교의 수단입니다.”

“부처님 일대기 등 일반 눈높이 저술”

불서를 펴내는 것은 곧 포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란 게 스님의 지론이다. 스님이 지금까지 낸 책은 크게 불교교양대학 교재와 교리서 그리고 수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스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불교교양대학 교재를 펴내는 일이다.

“영남대학교 개원 당시 시중 서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재로 사용할 만한 불서가 없었습니다. 초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리서가 없다는 것에 한국불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직접 교재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이 내놓은 책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경시리즈와 수필집이다. <금강경>, <발심수행장>을 비롯해 16종 22권의 사경집이 불교계의 사경바람을 일으켰다면, <저거는 맨 날 고기묵고> (전2권),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2권) 등은 베스트셀러로 불변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새로운 불교공부> 등 몇권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번역 출간을 의뢰할 정도다.

하지만 스님은 지금까지 50권의 불서를 내놓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때문이다. 스님은 “올해에는 청소년 교리서와 부처님의 일대기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펴낼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기불교 개론서 우리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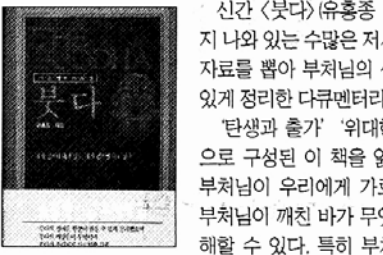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과...’ 전재성 역자 스리랑카의 불교문화학자 윌프리드 라홀라(1907~1997) 스님의 초기불교 개론서 <What the Buddha Taught>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한국불교출판협회) 바로 그 책이다.

‘불교의 정신’, ‘연기와 무아’, ‘오늘날의 실천’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붓다’ 유흥중 지음



흔히 부처님을 알면 불교가 보인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불교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출간된 것이 탄생에서부터 출가 그리고 성도와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그린 일대기다.



신간 <붓다> (유흥중 지음, 해누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저서들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 부처님의 생애를 한 눈에 읽을 수 있게 정리한 다큐멘터리 소설이다. ‘탄생과 출가’ ‘위대한 깨달음’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며, 부처님이 깨친 바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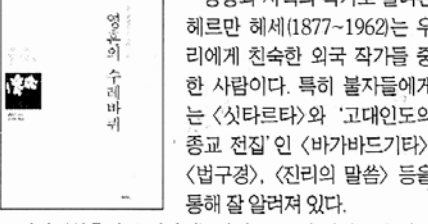
소설로 재구성한 부처님 일대기

겪었던 고통과 설법 내용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도 돋보인다.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에서 나왔으며, 모든 설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 깨달음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에 부제를 붙인다면 ‘초보자의 불교읽기’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승산 스님은 추천의 글에서 ‘붓다의 생애를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붓다의 진리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세계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며 “이 책을 통해 불교신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진리에 눈뜨기 바란다”고 밝혔다. 값 1만5천원.

‘영혼의 수레바퀴’ 권세훈 옮김



방랑과 사색의 작가로 알려진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우리에게 친숙한 외국 작가들 중 한 사람이다. 특히 불자들에게는 <싯타르타>와 <고대인도의 종교 전설>인 <바가바드기타>, <법구경>, <진리의 말씀>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신간 <영혼의 수레바퀴> (이레는 고대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중국의 종교와 철학 신화에 관련된 서적들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논평과 동양사상에 대한 단상을 담은 산문집이다.

헤세의 종교와 신화이야기

그는 먼저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민족적인 종류의 묘비와 주문에 가끔 공식적인 종교와 동떨어진 내용이 담겨 있음에 감동한다.

그리고 신화 시대의 고대 인도에서 한 왕이 고행 끝에 결국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사원과 왕국을 버린 채 맨몸으로 숲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전설을 통해 ‘찾는다’와 ‘발견한다’를 구별한다. 즉 찾는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짐을 의미하고,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상태에서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배제된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소크라테스, 예수의 출현뿐만 아니라 인도인, 유대인, 중국인들의 성서와 예술의 세계에서 평화로운 인간 정신을 표현한 모든 경이로운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 중에서 관용, 평화, 아름다움에 대한 노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도서 안내: (02) 737-0695

Small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A collection of Gong'an cases of the Buddhist master Shanshan, one of the four great Buddhas of the world). Price: 2,000 won.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It features several sub-sections: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Three major Buddhist faith guides), '영가천도' (Eulga Cheondo), '생활 속의 기도법' (Prayer methods in daily life), and '기도' (Prayer). Each section describes the benefits and content of the books, such as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How to do Eulga Cheondo?) and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Do you feel obstacles in Eulga?).